

부르시는 하느님, 응답하는 우리

이냐시오는 「왕의 부르심」 관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따로따로 불러 당신을 따라라고 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하느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이러한 이냐시오 영성의 역동성에 대해 성찰해 보자.

이냐시오 영성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이냐시오는 하느님과 그분의 창조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지니고 있었고, 많은 기도 방법, 식별 규칙, 영적 훈련, 사도적 봉사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냐시오 영성을 구성하는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중요한 질문, 즉 “하느님은 지금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도와주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하느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한다. 이것이 영성 생활의 근본적인 역동이다. 영신수련의 맨 마지막에 있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관상」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선물을 “마치 태양에서 빛이 나오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한다. 이것은 그저 포괄적인 비전이 아니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인격적으로 활동하신다.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의 목적은 “하느님의 빛과 사랑이 우리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결정과

결심을 이끌어 주도록”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의 움직임을 활발히 하는 것이라고 기술한다.

하느님은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이끄시고, 권고하시고, 제안하시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이냐시오 영성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영성 안에서 내적 통합을 이루게 한다. 이냐시오 영성에 결부된 기도 방법과 수련은 이렇게 활동적인 하느님에게 우리가 더욱 주의를 잘 기울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냐시오 영성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동시에 그분의 이끄심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게 된다.

하느님께 드리는 응답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의 약함과 실패로 인해 응답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하느님은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지금 응답해야 한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분명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어느 날 갈릴래아 호수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바로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이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명징한 표지가 되었다. 베드로는 즉각 자신의

“자격 없음”을 들어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루카 5,8) 물론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루카 5,10)

예수님은 당신 주위에 죄인들을 불러 모으셨다. 이냐시오는 예수님께서 마태오를 부르시는 장면에 주의를 기울인다. 당시 마태오는 사람들이 미워하던 로마인들에게 부역하며 궁핍한 소작농들에게 돈을 수탈하여 살아가는 세리였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오를 보시고는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마르 2,14) 이 죄인은 이렇게 응답했다.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마르 2,14) 마태오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기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옛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했다.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마르 2,15) 바리사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르 2,17)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이 있던 바로 그 자리, 즉 고기잡이배에서나 그물이 있던 곳과 세관에서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셨는지를 보여 준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당에 먼저 가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노이로제, 성격 장애, 죄스러운 행위들을 해결할 때가

지 기다리느라 하느님께 응답하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응답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며 깊어진다. 이것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나는 여러분에게 젓만 먹었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시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1코린 3,2) 하느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초심자라면, 또는 마음이 약하고 근심에 쌓여 있다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젓을 주실 것이다. 나중에는 차차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과정 내내 우리는 “나를 따라라.” 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응답은 특별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응답은 응답일 뿐이다. 하느님이 먼저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 내 마음대로 따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야” 한다. 따르다는 것은 하느님의 활동에 일종의 능동적 수동성을 취하는 것이다. “능동적 수동성”이라는 표현에는 이냐시오 영성의 특색이 담겨 있다. 즉 주의를 기울이는 영성, 바라보며 기다리는 영성, 느낌과 내적 자세의 부침을 알아차리는 영성이다. 우리는 마치도 시편 123장에 나오는 종이나 몸종과도 같은 것이다.

보소서, 종들의 눈이 제 상전의 손을 향하듯

몸종의 눈이 제 여주인의 손을 향하듯

그렇게 저희의 눈이 저희 하느님을 우러릅니다. (시편 123,2)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찾고 있다. 더 라는 말은 이냐시오 영성의 마지스 *magis*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봉사함에 있어서 항상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마지스는 예수회원의 “욕구” 즉 섬 없는 봉사, 높은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려는 포부, 새로운 도전전을 넘어서려는 열망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마지스는 단순히 더를 뜻한다. 우리는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려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드린 질문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부자 청년이 묻자 예수님은 선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들,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다. 이 청년은,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무엇인가 더 하기를 원한 것이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 청년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후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신다.(마르 10,17-21)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또 우리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도전하신다. 이것들은 우리가 지닌 물질적 또는 세속적 소유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나 열망일 수도 있다. 하느님은 나의 소유라고 여기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느님께 드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사용하시도록 맡겨 드리겠는가? 하느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